

참사람 36.5°C

2022년 1월 | Monthly | 발행처 교보교육재단 Tel. 02-925-8925



CONTENTS 목차

발행일

2022년 1월 4일 화요일
Monthly

발행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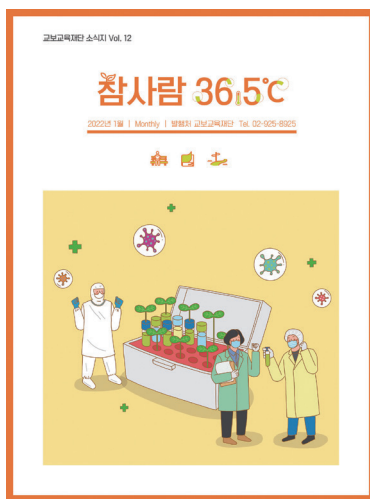
교보교육재단
Tel. 02-925-8925

교보교육재단 공식 홈페이지

kbedu.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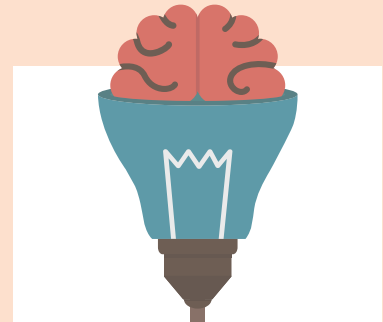
참사람 36.5°C 온라인 소식지

chamsaram.org



Cover Story

새롭게 맞이하는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
코로나19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하지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 변화를 찾으려는 노력,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는
낙관적 사고방식이 함께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04

참사람을 말하다
코로나19와 함께 하는 법,
뇌는 알고 있다



06

내가 만난 참사람 _ 에세이
진정성에 대하여
글 _ 장태기



08

책으로, 참사람으로
내 안의 빛나는 빵도르
글 _ 인천신현여중 유지희

‘할머니의 빵도르’는 어떤 책?
글 _ 우신영
인천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소설가



10

참사람 인터뷰
발달장애인을 위한
꿈의 직장을 가꾸는,
소셜벤처 <동구발>
노순호 대표



13

미래를 보는 창
책쓰기 교육,
가장 현실적이며 이상적인
독서문화 강화 방안
글 _ 허병두
승문고 교사, 前책따세 이사장



16

슬기로운 청소년 생활
지킬 건 지키고, 받을 건 받자!
청소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아르바이트 십계명!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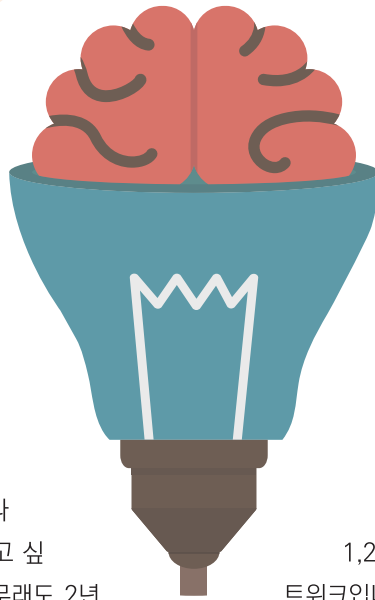
교보교육재단 소식
2022년 교보교육재단
주요 사업 일정 안내

19

교보교육재단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안내
교보생명
「희망다솜장학생」 제20기 모집

코로나19와 함께 하는 법, 뇌는 알고 있다

긍정적 사고가 선사하는 놀라운 선물



임인년(壬寅年) 검은 호랑이 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새해가 되면 달력 첫 장을 열며 이런 저런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올 한해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뤄지길 바라면서요.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새해니만큼 새 마음으로 힘차게 출발하고 싶지만 올 해도 녹록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때문이겠지요.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바이러스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힘들어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한 해,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갈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우리 뇌는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법·뇌·행동 센터장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경과학자 리사 펠드먼 배럿 박사는 뇌과학¹⁾에서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인간의 뇌가 수직적 3층 구조(뇌간-변연계-대뇌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배워 왔습니다. 삼위일체의 뇌 가설은 과학을 통틀어 가장 성공적이며 동시에 가장 널리 퍼진 오류입니다. 사실 인간의 뇌는 퇴적암처럼 층이 쌓여 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로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포유류는 동일한 뇌 구성요소를 갖고 있으며 신경세포들이 만들어지

는 시간에 따라 크기와 복잡도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동물과 인간을 구분하는 차이점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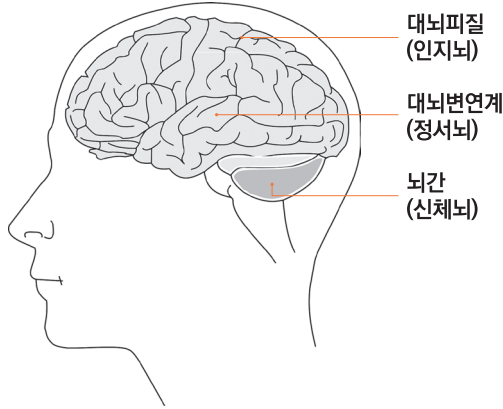
진화를 거치며 커지고 재조직된 인간의 뇌는 1,280억 개의 개별 신경세포가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입니다. 시냅스, 신경전달물질 등으로 이뤄진 이 네트워크는 밤낮으로 서로 통신을 주고받으며 뇌의 배선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 다른 씨앗은 다른 결과를 낳는다 ”

500조 개가 넘는 배선을 가진 뇌는 바깥 자극과 신체 내부의 정보들을 결합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는 모든 것을 만들어 냅니다. 뇌는 스스로 질문함으로써 기억으로부터 과거를 재구성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것과 비슷한 상황을 겪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 무슨 행동을 했는가?'

이에 대한 대답(예측)이 곧 우리의 다음 행동(반응)이 됩니다. 만약 경험을 다르게 기억하고, 예측한다면 감정과 반응 역시

출처: 뇌가 당신에 관해 말할 수 있는 7과 1/2가지 진실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 (2021)



[가장 성공적이면서 가장 널리 퍼진 오류, 삼위일체 뇌 가설]

달라집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바꿀 수 없지만 뇌가 예측하는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각을 갖거나 새로운 경험을 통해 뇌를 재배선(rewiring)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험을 앞두고 누구나 긴장 하지만 이 긴장을 꼭 불안으로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감 대신 시험을 잘 보고자 하는 '투지'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때 '투지'는 뇌가 미래를 다르게 예측하도록, 그래서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하는 씨앗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씨앗을 뿌림으로 우리는 미래를 다르게 예측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세상을 다르게 경험하게 됩니다.

“ 뇌의 기억이 달라지면? ”

이것을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똬방꾼, 평온한 일상을 가로막는 장애물로만 기억하며 코로나와 함께 할 한 해가 끔찍하다고 벌써 예측하지는 않으신지요? 당분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참에 기억을 다르게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실 코로나19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양상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뉴욕주립대학 심리학 교수인 글렌 게허(Glenn Geher)는 코로나19가 가져온 긍정적 변화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멀리 떨어져 있어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동안 사람들은 가족, 친구들과 연락하도록 격려하며 다양한 수단을 통해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
- 기술을 좋은 곳에 활용하게 되었다 코로나19는 기술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줬다. 빠르게 개선된 가상회의나 협업툴 등은 우리의 삶을 생산적이며 효율적으로 만들었다.
- 인생을 더 큰 틀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 모든 것이 멈춘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가진 것에 감사하고, 일상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 새로운 취미를 배우게 되었다 많은 사람이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동안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되었다. 다양한 취미 활동을 가지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 자연을 감상하게 되었다 최근 산책로만 가도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친 젊은 사람들도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 과학에 감사하게 되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후 약 1년 내 백신이 개발되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은 바이러스의 모든 측면과 확산을 분석했으며, 놀랄 속도로 과학이 발전했다.
-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연과 사람 우리 모두는 궁극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출처: Psychology Today(2021. 4. 15) 10 Positive Outcomes of the Pandemic

어떠신가요. '아! 맞다. 이런 면도 있었구나!' 하지 않으셨나요? 코로나19라는 과거 경험은 바꿀 수 없지만, 뇌의 예측을 긍정적으로 바꾸니 버틸만한 힘이 생긴 것 같습니다. 새로운 예측은 우리의 뇌에 심어져 다음 번 행동을 개선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선택에 '학습'이라는 멋진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현실에 낙담이 될 때마다 뇌에 새로운 시각을 불러 넣어주세요. '학습의 힘'을 믿어보는 거지요. 아마 코로나19와 함께 하는 동안 조금은 견디기 쉽게 느껴질 것입니다. 교보교육재단

2021 참사람 에세이 공모전

수상작 

진정성에 대하여

글 _ 참사람 독자 장태기



20대 초반, 나는 대학 생활과 더불어 대외활동도 병행했다. 그중 백혈병 환자를 돕는 봉사 활동 모임에서 한 명의 사람을 알게 됐다. 20대 초중반의 청년들 사이, 다소 두드러지게 나이가 있어 보이던 그분은 대학생 때부터 10여 년 넘게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었다고 했다. 누구보다 열의를 갖고 모임 내 굵은일을 비롯해,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그래서 그분과는 가깝게 지내고 싶어 먼저 다가가 여러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삶의 지혜를 비롯해 봉사활동에서의 필요한 자세도 배울 수 있었다.

나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봉사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울 때, 그분과도 아쉬움을 담아 인사를 이렇게 건넸다. “항상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라도 뵈 수 있겠죠?” 그분은 답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이곳에 있을 것 같아요. 부담 갖지 말고 언제나 찾아오세요.” 당시에는 그 말은 그저 주고받는 인사치레로만 생각했었다.

이후, 7년이란 시간이 흘러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으로서 생활하면서 그동안 잊고 지내던 열정을 되찾고 싶은 마음에서, 다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여전한 모습으로 그분이 계셨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그분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넰데, 그분 역시 나를 기억해주고 있었다.

마치 7년 전으로 시간이 되돌아간 것만 같았다. 나와는 달리 그분은 변함없이 백혈병 환자들을 돕고 있었다. 봉사활동이 아닌 개인적인 얘기들을 나누고자 약속을 잡고 여러 얘기를 나누면서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그분도 평일과 주말에 일하고 남는 시간과 더불어, 봉사활동을 위해 자기 휴가까지 조정하고 계셨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을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왔다. 또한, 혈액 및 백혈병 관련 학술 자료들을 작게 인쇄하여 그것을 들고 다니며 읽는 모습도 놀라웠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가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고 알려지면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도 이끌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분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저는 결코 대단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 일이 알려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그림자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림자. 스마트폰을 비롯한 SNS가 발달한 세상에서는 자신이 마치 세상의 중심인양, 즐겁고 행복하고 심지어는 미담을 자랑하는 것을 숨기지 않는데, 그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진정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됐다.

대중 앞에 진정성을 호소해야만 생겨나는 것이 아닌, 자기만의 소신과 그것을 이행하고자 했을 때 비로소 진정성이 빛을 발하는 것 같았다. 그분은 자신이 그림자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뒤로 숨고 있지만, 가슴 속 따뜻함을 품고 있는 사람은 결코 숨길 수 없는 법이다.

그분 덕분에 나를 기준으로 누군가를 도왔다는 만족과 자만에 빠졌던 과거를 성찰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눔이나 봉사활동과 같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관계의 장에서는 똑같은 사람으로서 그들과 천천히 눈을 맞추고 발맞춰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정성은 남이 아닌 내 마음속에서 최선과 감동이 만났을 때 비로소 빛이 나는 것임을 그분을 통해 알게 되었다.

내 안의 빛나는

★ ★ ★ 팡도르

글 _ 인천신현여중

유
지
희

사랑하는 엄마! 엄마를 제일 많이 닮아 예쁜 딸 지희예요.
편지는 정말 오랜만이죠? 그래도 너무 서운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떠나신 후에 머릿속으로는 엄마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떠올렸지만, 직접 편지를 쓸 용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할머니의 팡도르>라는 책을 읽고, 그동안 꼭꼭 눌러놓고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했던 제 마음을 솔직하게 꺼내서 보여줄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겨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책이 어두운
제 마음에 빛을 비춰주었거든요.

이 책은 바로 '죽음'에 대한 책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책을
고른 건 표지 때문이었어요. 표지에는 앙상한 나무들, 특이하게
생기신 할머니, 접시에 담긴 빨강고 동그란 무언가, 그리고 얼굴
없이 커다란 검은 물체가 그려져 있어요. 검은 물체가 사람인지
괴물인지, 도대체 무슨 내용일지 짐작이 안 되더라고요. 제목에
있는 팡도르가 뭔지도 몰랐으니까요. 엄마도 제가 호기심은 못
참는 것 아니죠? 바로 책을 펼쳐 읽어 보니, 얼굴도 없는 검은 물체는
죽음의 사신이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사신에게 내민 빨강고 동그란
것들은 할머니만의 비법으로 만든 팡도르라는 빵이에요. 팡도르는
이탈리아의 전통 빵이라는데, 저는 우리나라로 치면 명절에 많이

먹는 약과나 한과 같은까? 하고 생각하며 책을 읽었어요. 팡도르의
맛을 조금이라도 상상하고 싶었거든요.

책에서 외판집에 혼자 사는 할머니는 처음에 죽음이 자신을
잊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크리스마스 때 먹을 빵 반죽을 만들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사신이 찾아와요. 하지만 할머니는
달콤한 반죽을 사신 입에 넣어주면서 진짜 맛있는 빵의 맛을 보려면
일주일만 기다려야 한다고 해요. 그 달콤한 생명의 맛에 빠진 사신은
그렇게 사흘 후에 다시 방문했다가 또 하루를 더 기다리고, 결국
크리스마스까지 할머니를 데려가지 못해요. 처음에 저는 할머니가
사신을 따라가지 않고 계속해서 더 기다리게 했을 때, 할머니가
빵을 핑계로 며칠이라도 더 살고 싶어서 그러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드디어 찾아온 크리스마스 날, 사신과 아이들에게 아이싱
쿠키, 찰다, 금빛 팡도르를 먹게 해주고는 할머니가 사신에게
먼저 "이제 갑시다." 하셔서 놀랐어요. 저는 할머니가 또
다른 이유를 들어서 사신을 보낼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하지만
그다음에 이어진 할머니의 말씀에서 그동안 할머니가 죽음을 늦춘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찰다 속에 레시피를 숨겨 두었으니 이제 비밀은 아이들 속에
영원히 살아 있을 거예요. 이제 갈 시간이야." 그래서 저는 책에서
할머니의 이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할머니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할머니만의 특별 레시피를 아이들에게 영원히
남겨주기 위해서 죽음을 미뤘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엄마가 떠올라서 더 마음이 몽글했어요.

지나해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에 우리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잔뜩 만들어 놓고 메모지 붙여 놓으신 것 기억하세요? 저는 그
메모들을 다 모아서 아직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어요. 마치 엄마인
것처럼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엄마가 우리를 위해 정성을 담아
만들어주셨던 음식들의 맛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엄마도 이 책 속의 할머니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레시피를 남겨주신
거죠? 엄마의 사랑이 담긴 맛이요! 엄마가 있을 때보다 실력이
늘기는 했지만, 아빠와 오빠는 아무리 요리해 해도 그 맛을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렇지만 괜찮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엄마표 특별
레시피가 남아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음식을 먹을 때마다 엄마의
맛이 문득문득 떠오를 거예요.

아! 그리고 책을 읽는 도중에 갑자기 생각난 건데, 암세포 때문에 엄마 몸이 많이 아프셨을 텐데 어떻게 음식을 다 만드셨어요? 엄마도 죽음의 사신이 찾아왔을 때 팡도르 할머니처럼 우리에게 줄 반찬들을 맛보여주면서 기다리라고 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죽음의 사신도 엄마의 요리를 맛보고 마음이 따뜻해졌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번 크리스마스에 우리도 함께 보낼 수 있었을 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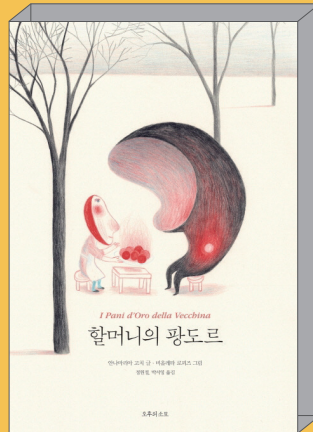
팡도르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영원한 비밀 레시피를 남겨준 후, 사신과 함께 솜사탕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떠났대요. 할머니의 마지막 뒷모습을 상상하면서 엄마의 모습도 상상했어요. 사실 책을 읽기 전에 저는 엄마를 떠올리면 마음이 돌처럼 무거웠어요. 원망스러운 코로나9 때문에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해서 더 그랬어요. 엄마의 마지막 모습은 과연 어떤 얼굴이었을까, 우리 걱정하느라 힘들어하면서 떠나시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생각만 하면 더 슬퍼지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차마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엄마도 팡도르 할머니처럼 가벼운 모습으로 떠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가 아이들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레시피를 남겨주었던 것처럼, 엄마도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엄마의 맛, 엄마의 손길, 엄마의 사랑을 넣어주고 가셨으니까요. 엄마는 내 마음에 영원히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솜사탕처럼 가벼워진 마음으로 떠나신 거죠? 이제 저는 엄마를 떠올려도 슬프기보다 행복해질 거예요. 내 안의 엄마를 느끼면서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도 너무 두려워하지 않을래요. 팡도르 할머니는 매정한 죽음의 사신도 변화시켰거든요.

다 읽고 책을 덮으니까 표지 그림이 다시 보였어요. 검은 사신의 몸속에는 할머니의 팡도르가 붉은색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심장이 생긴 것처럼요. 저에게도 죽음의 사신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지만, 엄마와 팡도르 할머니처럼 영원한 것을 남길 수 있다면 죽음이 그렇게 무섭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의미 있는 것을 남기면서 살아갈 거예요. 엄마도 내 안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저를 지켜봐주실 거죠?! 우리 나중에 행복한 얼굴로 다시 만나요.
사랑하는 우리 엄마, 영원히 사랑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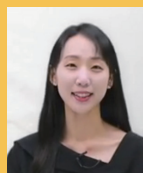
‘할머니의 팡도르’는 어떤 책?

빵 맛과 인생 맛을 동시에 보여주는 동화



삶과 죽음 사이에 선택이 있다고 어느 철학자가 말했지요. 이 아름다운 동화 속 할머니는 삶과 죽음 사이에 기다림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신을 찾아온 죽음의 신에게 조금만 기다려주기를 청하며 그녀가 하는 일은 달콤한 디저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따스하고 달콤한 디저트의 맛 앞에 죽음의 신은 자신의 임무조차 잊어버리죠. 할머니가 만들어낸 팡도르며 핫초코의 달콤함과 부드러움에 처음으로 눈을 뜨게 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자신이 없어지죠. 하지만 할머니는 일을 끝내고 오히려 담담하게 죽음의 신을 맞이합니다. “이제 감시다.”라고 말하면서요.

죽음의 신이 유예해준 약간의 시간 동안 할머니는 그녀가 원래 하고자 했던 일을 멋지게 마무리하고, 냉정한 죽음의 신에게 처음으로 달콤함과 따스함을 경험하게 해주며, 디저트 속에 숨겨진 레시피를 통해 아이들에게 디저트의 비밀을 전수하지요. 결국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나만의 레시피를 만들고, 타인을 대접하며, 인생의 진미와 의미를 미래의 세대에게 전수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 아름다운 동화를 한번 맛보시기를 정중히 권해봅니다.



우 신 영
인천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소설가

문학에 대해 생각하고, 읽고, 쓰고, 가르치는 일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마음 속에는 문학으로 치유되기를 기다리는 내면아이가 숨어있다 믿습니다. 사람들 가슴 속에는 문학으로 타오르길 기다리는 불꽃이 깃들어 있다 믿습니다. 그들을 치유해주고 마침내 아름답게 빛나게 해줄 문학교육의 길을 계속 고민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된 지 수 십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장애인에게 취업이란 높고도 험난한 과정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지금, 직원의 절반이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특별한 기업이 있습니다. 텃밭 관리에서 시작해 친환경 수제비누를 생산하며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는 '동구밭' 노순호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꿈의 직장을 가꾸는, 소셜벤처 <동구밭> 노순호 대표



안녕하세요 대표님! 발달장애인분들의 꿈의 직장, '동구밭'의 이야기를 직접 듣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특별히 발달장애인을 위한 회사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사업이 커질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저 제 개인적 신념으로 대학생 시절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활동을 시작했죠.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내 아이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으면 좋겠다는, 지극히 개인적 차원이었어요.

대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사회적 가치가 담긴 프로젝트를 해볼까 고민하다가 선택한 영역이 바로 '농사'예요. 우리 세대에는 농사가 낯설고 신선한 존재잖아요. 여가와 치유 개념을 담은 텃밭 가꾸기 프로젝트를 준비했는데 거기서 발달장애인분들을 만나게 됐죠. 장애인을 둔 부모님들과도 소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분들에게 관심을 갖게 됐고, 처한 현실을 알게 됐어요. 약간의 결은 다르지만 20대 초반 청년들도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정말 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발달장애 청년들도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청년 발달장애인의 일상을 살펴보면 하릴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일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들을 위한 일자리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 분들에게 농사일을 가르쳐서 도시 농업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농사 프로젝트가 되었어요.

'동구밭'하면 천연수제비누가 떠오르는데 그 시작점에 '농사'가 있다는 점이 흥미로워요.

사실 농사 프로젝트는 결과만 보면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 채로 끝났어요. 그렇지만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죠. 첫 번째로 느낀 건,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부모의 생각이 꼭 일치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프로젝트에 농사를 지어서 농부가 되겠다는 목표나 사명을 갖고 온 발달장애인은 없더라고요.(웃음). 그러니까 성공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프로젝트 기간 동안 단 한 명의 이탈자도 없었고 모두가 행

복한 시간을 보냈던 건 확신해요. 프로젝트를 마치고, 농사에는 관심이 없는데 왜 단 한명의 이탈자도 없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분들에게는 비장애인을 친구로 둔다는 것에 대한 설렘이 있었더라고요. 장애, 비장애를 떠나 친구가 되는 경험이 이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된 순간이었죠. 이런 인사이트가 있었기에 동구밭을 창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동구밭’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발달장애인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건 상 모든 분들을 채용할 수 없으니 고민이 크시겠어요.

맞아요. 처음엔 발달장애인분들을 전부 다 고용할거라는 원대한 꿈을 가졌었어요. 그때는 저랑 인연이 닿고 손을 내밀어줘야 할 것 같은 분들을 다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했죠. 제가 정말 열심히 하면 가능할 줄 알았거든요.

막상 현실과 맞닥뜨려 보니 비누를 만드는 제조업 특성 상 일을 일정 수준 이상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결국 그 부담은 현장에 계신 작업자 분들이 떠안게 되니까요.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이 결코 이상만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여러 부분을 판단한 뒤 동구밭의 인재상에 맞는 분들을 채용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좋은 곳에서 일하고 싶어 하잖아요. 높은 월급, 성취감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자리겠어요? 이 논리는 발달장애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요. 장애인이라고 원하는 게 다를 게 없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발달장애인에게 좋은 일자리란 ‘오래 일할 수 있는 곳’이에요. 저희 회사도 이 부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 분들이 하고 걱정 없이 꾸준히 일을 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동구밭에는 몇 분 정도 일하고 계신가요?

지금 총 사원이 80명 정도인데 저희는 발달장애인 사원을 전체 사원의 50% 넘도록 유지하려 해요. 약 40여명 정도의 발달장애인 분들이 저희랑 함께 하고 계십니다. 현장에서 제조일을 담당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좀 더 원활히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 자체를 마이크로하게 주는 편이에요. 명확하게 업무를 분장하는 거죠. 처음에는 저희도 경험이 없어서 어려웠지만 이제는 점차 매뉴얼화되고 체계화되어가고 있어요.

‘동구밭’이 본격적인 사업 아이템을 고민할 때 수제비누사업과 아쿠아포닉* 스마트 농업 사이에서 방향을 고민하셨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한번 어떤 시장으로 뛰어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였었죠. 사업 아이템을 선택할 때 4가지를 중점적으로 고민했었습니다. 첫째, 발달장애인을 적극적으로 취업시킬 수 있는가? 둘째, 당장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분야인가? 셋째,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이 긴가? 넷째, 우리가 시장에서 1등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 중에서 1등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봤어요. 그런 면에서 아쿠아포닉스와 천연비누사업을 두고 고민했었죠. 아쿠아포닉스는 유통기간이 짧았고 무엇보다 우리 힘으로 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비누사업을 선택하게 됐죠.

천연수제비누 시장에서 동구밭이 1등할 가능성은 어디서 발견하셨나요?

우선 시장조사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형 화장품 회사를 분석했어요. 그들이 하지 않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 찾았죠. 그리고 기존에 장애인들이 비누를 제조하는 일들이 많이 했던 것도 참고했구요. 막상 천연수제비누 사업을 결정하고보니 주변에서 걱정, 비난의 목소리가 많았어요. ‘젊은애들이 생각 한 게 거냐? 10년 전에 해서 잘 안됐던 걸 왜 다시 하나?’는 식이었죠.

저는 기존의 장애인 천연비누사업이 망한 이유가 뭔가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제품 브랜딩, 영업 부분도 취약했구요. 장애인이 만들었다고 해서 시장 경쟁력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대형 화장품 회사와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를 고객사로 해서 제품을 납품하는 방법을 택했죠. 이렇게 하면 고정 매출이 나오게 되고 안정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시장을 좀 더 파고 들어가보니 대기업에 납품하는 비누 제조사들이 모두 영세하더라고요. 거기서 우리가 충분히 열심히 하면 1등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봤죠. 사실 천연비누시장이 그렇게 매력적인 영역은 아니에요. 다품종 소량생산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도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요. 이렇게 우리의 경쟁사가 어디고, 우리의 고객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파악했기 때문에 비누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었어요.

* 아쿠아포닉 : 수산양식(Aquaculture)와 수경재배(Hydroponic)의 합성어로, 어류 양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을 식물 재배에 활용하는 용법을 뜻함.



천연비누부터 고체삼푸, 고체세제까지, 동구밭의 성장 과정을 보면 점점 환경을 중요시 여기는 소비자와 시장의 흐름을 빠르게 읽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덕분에 대표님 바람대로 더 많은 장애인분들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으셨을 거고요. 이쯤 되니 동구밭에서 일하시는 장애인분들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에게서 긍정적 변화의 기운이 느껴지시나요?

물론이죠. 동구밭에서 일하면서 사회성이 높아진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장애인 직원 가족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에서도 자기 목소리를 더 내고 주체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해요. 사람을 대하는 에티켓도 증가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것이예요. 사실 이걸 장애인에게만 한정된 얘기가 아니긴 해요. 일을 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 그것 자체가 개인의 자존감에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말해 무얼 하겠어요. 평생을 '하지마!'란 얘기를 듣다가 직장에서는 '하지마'란 말 대신 다른 직장과 똑같이 대우를 받으니까 그분들에게 얼마나 감동이었겠어요.

사회인으로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동구밭처럼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실태를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제도는 잘 되어있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의무고용제도도 시행되고 있고 연계 고용제도도 정착되어 있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제도적인 것 보다 국가 기관부터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공공기관은 장

애인 고용을 안 한 부담금을 세금으로 내고 있어요. 물론 이 세금이 다시 장애인을 위해 쓰이고 있지만 제도의 목표는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거니까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업도 함께 해야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탄소배출권을 사고 팔 듯이, 장애인 고용권도 서로 사고 파는 제도도 시범적으로 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기업에 자꾸 제한만 두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 창출이 민간 영역에서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 개념이 좀 더 확산되길 바랍니다.

결국 장애인 고용이 활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공, 민간 영역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그리고 계신 동구밭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다보니 사업적으로 경쟁해서 버텨내야 되는 순간이 참 많이 찾아와요. 그러다보면 가끔 원래 목적을 잊고 살 때도 생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잃지 말자. 저는 이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외국에서도 우리 동구밭이 부러워서 대한민국으로 이민 오고 싶다는 장애인분들이 생길만큼 멋진 기업으로 성장하고 싶어요.

고객 분들이 보시기에 우리 회사가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곳이지만, 만약에 우리 회사가 망한다면 그 이유는 더 이상 비누를 못 만들거나 품질이 떨어져서가 아닐거예요. 발달장애인 문제를 더 고민하지 않을 때, 그때가 저는 동구밭이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해서 동구밭이 발달장애인이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발달장애인이 어디서든 마음껏 능력을 펼치며 일할 수 있는 사회를 꿈꾸고 있다는 노순호 대표. 꿈이 단순히 꿈에만 머물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며 변화를 일구어나가는 그는 진정한 우리 시대의 참사람입니다. 사회적 기업가로서,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친구로서 노순호 대표와 동구밭이 함께 만들어갈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을 저희도 함께 꿈꾸어 봅니다.



책쓰기 교육, 가장 현실적이며 이상적인 독서문화 강화 방안



허병두 송문고 교사, 前책따세 이사장

1. 독서교육과 세계시민교육, 그리고 평생 교육

교사: 학교 독서교육은 성공한 것일까? 최근 20여 년만 따져보아도 우리 교육 현장에서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고 교과 독서교육에 들인 노력이 상당한데 왜 아이들은 여전히 책을 잘 읽지 않을까? 공교육의 독서교육이 정말 성공했다면 왜 어른들은 아직까지도 책을 열심히 읽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독서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온 국민이 책을 열심히 읽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해법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학생: 세계시민교육? 매년 똑같은 주제들이 되풀이 되어서 나온다. 환경, 난민, 인권, 젠더... 초등학교 때 배운 수준에서 특별히 벗어나지 않는다. PPT와 동영상으로 수업을 듣고, 모둠 토론을 하고 다시 간단하게 실습을 한다. 모두 심각하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공부하는데 어른들이 만든 문제들을, 그것도 어른들도 어찌지 못한 문제들을 왜 우리에게 해결하라는 것일까? 세계시민교육... 어느새 진부하고 부담스럽다.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감히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독서교육은 성인 독서를 좌우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기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교사들은 입시 교육에 강력하게 맞서거나, 은근히 '편승'하기도 하면서 독서 교육에 수많은 노력들을 쏟아왔다. 하지만 성과는 여전히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다. 입시 교육이 완전히 없어진다고 해서 딱히 학생들은 물론 온 국민이 책을 열심히

히 읽게 할 수 있을지 자신할 수도 없다.

세계시민교육? 이게 왜 중요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세계시민교육은 우리 교육이 입시를 통한 명문대 입학,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개인의 신분 상승에 대부분 머무는 한계를 탈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실제로 현재 우리 나라 세계시민교육의 철학과 목표, 내용은 나무랄 데가 없다.

하지만 공교육 현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세계시민을 길러낼 수 있는지 보충한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세계적 기구나 관련 시민단체에서 펼치는 세계시민교육도 학생의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부담스럽고 미흡할 뿐이다. 비유하자면 세계시민교육이라는 물레방아를 열심히 돌리고는 있지만 정작 개인과 공동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결정적인 동력으로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에 그치지 않나 하는 반성과 우려도 떨치지 힘들다.

현실이 이렇다고 독서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활성화하는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는 즐겁고 의미 있게 배우고 그 결과를 다른 이에게 더욱 창조적으로 가르치며 나누는 행위야말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 풍요로운 사회를 만드는 기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서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제대로 전개하여 아동이든 성인이든 학습자가 책을 열심히 읽고 진정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은 평생교육의 방법과 목표 그 자체라 할 만하다.

유네스코가 '양질의 교육'을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로 제시하면서 그 자체가 SDGs를 달성하는 밑바탕이라 규정한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이다. 즉,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지식 및 기술 습득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유네스코의 설명은 책읽기와 세계시민교육, 평생 교육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는지 보여주는 뜻으로 수용해야 합리적이다. 다시 말해, 인간이 좀더 평생 행복해지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서, 평생교육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필수 전제로서 독서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은 언제나 중요하다. 그렇기에 이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강력하고 획기적인 방법을 더욱 찾아야 한다.

2. 이 책을 아시나요? [함께해요, 미안마!]

지난 6월 25일 부천유네스코책쓰기교육연구회(이하 '책연')와 부천 시민들은 공저로 [함께해요, 미안마!](누림과이름)를 펴냈다. 이 책의 판매 수익금 전액은 오로지 미안마를 돕는 데 쓰이는데, 부천시 2017년부터 유네스코창의도시 사업으로 꾸준히 추진 중인 부천시 민 '일인일저(一人一著)' 사업의 빛나는 성과다.



‘일인일저’란 말 그대로 한 사람이 한 권의 책을 쓰도록 한다는 목표로 부천시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교육문화 정책이다. 부천시는 부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약 1년 간에 걸쳐 일인일저 책쓰기교육 지도자 과정을 운영 중이며, 이 과정을 이수한 지도자 시민들이 중학교와 문해학교, 어르신 모임 등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각계각층의 부천 시민들을 찾아가 일인일저를 할 수 있게 돕는다. 지금까지 이들이 펴낸 시민작가 책은 419권에 이르며 계속 확대되고 있다. 책연은 일인일저 지도자 과정을 수료한 부천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비영리 연구모임으로서 현재 51명의 회원들이 시민 각자가 책쓰기를 통해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돕고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함께해요, 미안마]는 책연, 구체적으로 ‘미안마 프로젝트 팀’ 일곱 명이 앞장서서 발간한 책이다. 이들이 펴낸 [함께해요, 미안마], 그리고 이 책을 출간하며 미안마를 돕게 된 계기와 과정, 의미 등을 살펴 보면 독서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이 어떻게 만나 평생교육의 성과를 이루어내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함께해요, 미안마]는 미안마의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고 응원하는 메시지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여 만든 책이다. 개인적으로도 미안마 팀에서 기획 총괄을 맡아 [함께해요, 미안마] 출간에 참여한 것은 스스로 올해를 기념할 만한 시도와 성과였다고 믿는다.

이 책의 잉태는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금세 끝날 줄 알았던 미안마 상황이 점점 비극으로 치달던 어느날, 한국대사관 앞에 모여든 미안마 인들이 한국어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미안마를 도와주세요!’ 울부짖는 모습을 TV로 보며 너무나 안타까웠다. 마침 그 순간 [내가 책이라면]이라는 그림책을 읽던 책연의 지도자 한 분이 문자로 질문을 보아 왔다. ‘선생님께 책은 어떤 의미인가요?’ 도저히 쉽게 답할 수가 없었다. 도대체 책이란 무엇이란 말인가. 한쪽에서는 목숨을 걸고 저항하며 도와달라는데 그저 속절없이 TV나 보고 있다니, 기껏해야 미안마를 돕는 성금을 보내면 되는 것일까? 먼 기억 속의 아픈 시간들도 떠올랐다. 남녘을 핏빛으로

얼룩지게 했던 사건들, 그리고 함께하지 못했다는 평생의 부채 의식... 웬만한 기성 세대라면 갖고 있는 부끄러움까지 떠오르며 견딜 수가 없었다.

너무 답답해 몇 줄의 글을 SNS에 쓰자, 책연의 회원들이 릴레이처럼 글을 쓰기 시작했다. 모두 함께하고 있었다니! 순식간에 이어지는 글들을 보면서 서로 아픔을 공유하고 뿌리깊게 연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책연의 활동은 그들의 가족과 이웃으로 퍼지며 부천의 시민들에게 확산되었다. 고사리 손에서 어르신까지 글과 그림, 글씨 등을 보내오기 시작했다. 어느새 제법 두툽한 분량의 책으로 영글기 시작했다.

우리는 미안마에 관한 뉴스를 공유하고 관련 책을 읽고, 다시 미안마를 위한 시를 쓰고, 낭송하여 녹음파일로 남기고, 그림을 그리고 동영상도 만들면서 미안마를 응원하고자 힘을 모았다. 우리들의 노력과 성과가 미안마를 돕는 작은 힘이 될 것이라고 믿었고 예상하지 못했던 성과가 눈앞에서 실현되는 것들을 행복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미안마를 돕겠다는 소박한 마음이 가족과 이웃, 그리고 부천 시민이라는 차원으로 확대되며 책으로 출간하기까지 두 달 남짓이나 되었을까. 우리 모두의 책 [함께해요, 미안마]가 출간되자 신문과 방송에서 취재가 시작되었으며, 각종 SNS를 통해 책의 내용과 의미, 출간 과정, 앞으로의 계획 등을 알리게 되었다.

어느 순간이 되면서 미안마를 돕는 방법에 대해 어느새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돕는 것이 차치 내정 간섭이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돕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을까? 시민들이 이렇게 돕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책자를 판매한 수익금은 물론 자신들의 돈까지 더하여 미안마에 성금을 모았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보내야 하는 것일까? 우리가 펴낸 책이 과연 얼마만큼 미안마를 도울 수 있는 것일까?

서로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면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책들에 고개를 파묻으며 통찰하려고 노력했고, 다시 책을 덮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면서 성찰하는 순간들이 있었다.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 왜 책이 중요한지 자연스럽게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영문으로 부분 번역을 하여 누구나 읽을 수 있게 저작권 기부 방식(출처 표시, 변형 가능, 비영리 조건)으로 전 세계에 널리 공개하자는 의견까지 이르렀다. 마침내 이 글을 쓰는 지금은 [함께해요, 미안마](한글영문 혼합본 PDF 책자)를 보내 뜻을 함께 할 국내외의 단체나 기구, 언론, 유력한 여론 선도자들의 이메일을 모으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 아태 국제교육원은 이 책의 출간 과정과 의의가 지속 가능한 평생 교육의 모범 사례로 손꼽을 만하다고 발표 자리를 만들어 주기도 하였다.

3. 책쓰기 교육이라는 새로운 방안에 대하여

세상은 엄청나게 바뀌고 있다.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현재를 설명하고 미래를 구상할 수는 없다. 종래의 독서교육이 평가의 멍에 빠져서 대부분 책읽기의 즐거움과 자유로움을 맛아갔다면, 또한 수많은 노력이 쏟아진 세계시민교육이 대부분 어느새 진부한 부담지우기 교육으로 비틀거리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재무장해서 독서문화를 제대로 조성해야 할 때다. 책을 읽으라고 강요하지 말고, 책을 읽고 평가하겠다고 위협하지 말고,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재미있고 즐거운지 또한 보람 있는지 경험하게 해 주면 충분하다.

[함께해요, 미안마]를 펴내는 과정에서 우리는 충분히 보상받았다. 각자의 흥미와 재능, 적성과 능력에 따라 함께할 수 있었기에 부담스럽지 않았고, 힘은 많이 들었지만 스스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체험에 모두 즐거웠다. 실제 책으로 펴낼 수 있어서 의미 있었고, 판매 수익금 전체를 한푼도 남김 없이 모두 미안마를 돕는 데 보내져 더욱 보람 있었다. 이제 한글과 영문을 섞어 널리 세상에 공개할 한글영문 혼합본 [함께해요, 미안마] PDF 책자를 통해 좀더 많은 이들이 미안마를 돕고자 나설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세계인들이 자연스럽게 한글과 한국, 우리 한국인들을 접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슴 뿌듯하다.

도대체 책과 독서는 어떤 의미일까? 주위를 돌아보면 휴대전화나 태블릿 등으로 무엇인가를 읽느라 '삼매경'에 빠진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궁금하면 검색하고, 다시 사색하면서, 사고와 정서를 가다듬으면서 누구나 개인적으로 또는 함께 모여서 책을 쓸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기존의 종이책에만 갇혀 있지 않을 때 좀더 종이책에도 더 가깝게 갈 수 있게 할 수 있다. 즐겁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위해서라면 종이책을 결코 무시할 수 없듯이, 새로운 시대에 그저 책을 읽으라 훈계하고 억압하는 대신, 스스로 각자 자신의 주제를 찾고 공동체의 차원에서 함께 통찰과 성찰, 연대의 주제들을 모아서 다양한 책들로 펴내면 좋겠다. 좀더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책쓰기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도한다면 충분히 즐겁고 의미 있고 보람 가득한 독서문화를 만들 수 있다. 기존의 책읽기에서 이제 책쓰기로 사고를 전환하고 정책으로 지원해야 한다. 부천의 사례가 이를 잘 입증하고 있다.

책쓰기 교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선 읽기에서 쓰기로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는 데서부터 시작하면 의외로 쉽다. 기



존의 글쓰기 교육이라면 특정한 주제를 획일적으로 주고 창의적으로 글을 쓰라는 '폭력'을 떠올리겠지만, 책쓰기 교육에서는 스스로 주제를 설정하게 만들 수 있게 '제안'을 하는 식으로 달라도 한참 다르다. 이를테면, 온갖 책들이 가득한 도서관에서 정말 자기가 저자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책들을 세 권만 찾아오라고 부탁하는 식이다. 어쩌면 그렇게 자신의 관심과 흥미, 재능과 소망 등과 연관된 책들을 잘 뽑아오는지 놀랄 정도다.

자신이 직접 주제를 설정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키워주면 책을 출간하는 것은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이냐의 문제에 불과하다. 책쓰기 교육 방법들은 무수히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개발될 것이다. 이미 공교육 현장에서 지난 97년부터 책쓰기 교육이 시작하였으며 관련 책들도 여럿 나와 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은 [책따세와 함께하는 책쓰기교육](문학과지성사)이다. 책연의 다음 책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책쓰기교육'이면 더없이 좋겠다.

책이라면 자꾸 노작이나 역작 같은 학술서만을 떠올리는데 치명적인 오해다. 도서관과 서점의 수많은 책들을 보라. 간단한 색칠하기 책부터 포토에세이, 지도책 등 그야말로 다양한 내용과 형식, 수준의 책들이 즐비하다. 누군가가 이미 썼는데 왜 못 쓴다고 겁을 먹을까? 자기가 흥미와 관심, 사색과 노력을 더하여 책을 쓰게 만드는 것은 평생 스스로 노력하면서 즐겁게 책을 읽을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이며 이상적인 독서문화 강화 방안이다. 책쓰기 교육을 좀더 강력하게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주면 좋겠다.

아, 꼭 덧붙이고 싶은 사족 두 가지. 제발 책쓰기 교육을 입시 교육에 연결시키지는 말자. 이미 왜곡한 사례들이 많아서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생이 쓴 책은 기재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또한 현재의 도서관 또한 책 읽기만을 계몽하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책쓰기 공간으로 완전히 뒤바뀌어야 한다.

지킬 건 지키고, 받을 건 받자!

세상에는 왜 이렇게
놀거리도, 사고싶은 것도
많은지...
그저 우리 방탄소년단
오빠들 앨범 하나 사고,
떡볶이 한 접시 사먹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용돈은 부족한 건지...



청소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아르바이트 십계명!

겨울방학을 맞아해 아르바이트를 지원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접 돈을 버는 경험을 통해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어보고,
땀 흘려 일하는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청소년 시기 권장할 만한 경험입니다.
하지만 부당한 대우 또는 인권 침해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
즐거운 추억이 되어야 할 아르바이트가 악몽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번 호 ‘슬기로운 청소년 생활’에서는 청소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아르바이트 십계명을 안내합니다.

제1계명

근로 가능 연령은 만 15세 이상!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연령은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입니다. 만약 만 15세 이상이지만 중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만 13~14세의 청소년들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2계명

부모님의 동의서 +
나이를 알 수 있는 증명서는 필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업주에게 부모님 또는 친권자, 후견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업주에게 근로 청소년 당사자의 나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제3계명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자!

근로계약서는 청소년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여러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계약 문서입니다. 반드시 임금,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휴가, 업무내용 등이 꼼꼼히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사업주와 함께 작성하고 소중히 보관하세요.

제5계명

하루에 7시간 이상 일할 수 없어요!



청소년은 하루에 7시간 이상, 일주일 기준 35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만약 연장근로가 필요하다면 동의 과정이 있어야 하고, 야간 및 휴일 근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만 15~18세의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이 또한 한 주 최대 6시간까지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돼요.

제7계명

주휴수당 또는 주휴일, 꼭 챙기세요!

일주일 동안 개근하였고 총 15시간 이상 일을 했다면,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일한 날짜와 시간을 꼼꼼하게 체크해본 후 유급휴일이 발생했다면 꼭 사업주에게 이야기하세요.

제9계명

잊지말자, 산.재.보.험!

청소년 아르바이트 역시 산업재해보험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치료와 보상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만약 가입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산재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답니다.

제4계명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의 보장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3명 중 1명은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돈을 받고 일을 했다고 해요. 이처럼 아직 나이가 어리다며 성인보다 시급을 낮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또한 성인과 동등하게 최저임금을 보장받겠다고 법에 분명히 명시되어있답니다.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 일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제6계명

**휴일근무 또는 초과근무 시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했을 때 가산 임금으로 통상 임금의 50%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 곱하기 1.5를 하면 간단하게 계산이 되겠죠? 초과근무를 했다면 반드시 사업주에게 가산 임금을 당당히 요청하세요.

제8계명

위험/유해 업종에서는 일 할 수 없어요!

청소년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이발소, 안마실을 설치한 사우나, 만화대여업, 소주방·호프·카페,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소각·도살업무 등에 종사할 수도 종사해서도 안된답니다.

제10계명

피해신고는  **1644-3119**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부당한 피해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해결 및 대처방안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는 1644-3119이니, 휴대폰에 저장해두는 센스를 발휘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음의 온도를 1°C 더 높여주는 훈훈한 소식이 한 가득!
 교보교육재단의 카카오톡 채널과 친구를 맺어보세요.
 검색하고 → 플러스 친구 맺기 하면 끝!
 단 2초만에 교보교육재단의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교보교육재단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안내



① 카카오톡 친구목록 상단의 **돋보기 모양**을 선택



② <교보교육재단> 채널 검색 후 플러스 친구 버튼 선택, 끝!



교보생명 「희망다솜장학생」 제20기 모집

교보교육재단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대학에 진학하여 미래 희망을 설계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보생명 희망다솜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장학금 지원과 장학생 커뮤니티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희망다솜 장학금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① 보육원/공동생활가정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성장한 2022학년도 국내 대학 신입생
- ②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조손가정/소년소녀가정/위탁가정 청소년으로 2022학년도 국내 대학 신입생

※ 지원자격은 ① 또는 ②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신청 가능

2. 지원내용 대학 입학부터 졸업까지 장학금(생활비 명목) 지원 (최대 8학기/학기당 200만원)

3. 선발인원 총 20명 내외

4. 접수기간 2022년 1월 16일(일) 자정까지

5.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교보교육재단 홈페이지(www.kbedu.or.kr) 참조



자세히 알아보기

참사람 36.5℃

교보교육재단이 생각하는 참사람은 정직, 성실한 성품을 갖추고
끊임없는 자기성장을 추구하며 자리이타 실천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성숙한 인격체입니다